**가키노시마 유적**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에 있는 가키노시마 유적은 기원전 7,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입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선사 시대 6,000년 이상에 걸친 출토품과 무덤 구덩이,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보여주는 흔적을 살펴봄으로써 선사 시대 일본인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적과 인접한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링크]에서는 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함과 동시에, 선사 시대 일본의 사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례 의식과 매장 관습의 발달

장례 의식과 매장 관습은 조몬 시대(기원전 13,000년~기원전 400년) 사이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무덤은 마을 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가키노시마 유적에서는 거주지와 무덤지가 분리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 구덩이 중 일부는 기원전 5,000년~4,500년의 것입니다.

희귀한 부장품

가키노시마 유적의 무덤 구덩이에는 다양한 부장품이 함께 매장되었는데, 그중에는 발 모양이 달린 토판(판 모양의 토제품)도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4,500년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판은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새끼줄 문양(조몬, 縄文)이 있고 1~2개의 발 모양이 달려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 모양은 6~18cm로 아마도 아이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편 면에 손 모양이 달린 토판도 있습니다.

U자형 성토

이 유적에는 커다란 U자형의 성토(흙무지)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량의 토기와 석기, 동물의 뼈 파편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성토에서 출토된 유물의 일부와 토양에서는 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불이 피워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성토 한쪽 구석에서 발견된 땅에 도랑을 판 흔적은 U자형의 중앙부분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성토의 중앙부분에서는 갈돌, 검 등의 제사용 도구가 포함된 작은 흙 무더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성토에서 장례식 등의 의식을 행하고 공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성토는 아마도 수백 년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는 190m 이상, 너비는 120m이며 높이는 가장 높은 지점이 2m에 달합니다.

토기

가키노시마 유적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는 바닥 부분이 뾰족하고 흙반죽에 조개껍데기를 눌러 붙인 듯한 문양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시기가 지나면 정교한 장식과 주홍색 칠이 특징인 옻칠 주구토기(액체를 따를 수 있도록 부리가 달려 있는 토기)와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복잡한 모양의 향로형 토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출토품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고도의 토기 제작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링크]에는 가키노시마 유적, 오후네 유적[링크](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차로 10분) 등 이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이 평가되는 출토품은 내부가 비어 있는 ‘중공 토우’입니다. 이 토우는 채소밭을 일구던 여성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우는 복잡한 디자인과 섬세한 문양, 광택있는 마감, 그리고 뛰어난 보존 상태로 고고학자와 미술사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이 토우는 도쿄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대영박물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전 세계의 대표적인 박물관에서도 전시되었습니다.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에서는 전시 외에도 뜨개질이나 토기 등 선사 시대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견학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유적

오후네 유적[링크]은 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규모 마을 터가 발견된 이 유적에서는 커다란 수혈식 건물의 토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홋카이도에 있는 다른 유적으로는 대형 패총(조개무지)이 발견된 이리에-다카사고 패총[링크]과 기타코가네 패총, 삿포로 근처에 위치한 기우스 주제묘군[링크]이 있습니다.